

2003년 금속캔 업계 전망

금속캔은 내용물의 장기보존성 우월하고 금속의 열 및 전기 전도성 우수로 고온살균, 급속냉각이 가능한것 등 제조상 효율이 높은 장점으로 식품용기의 하나로 호평되고 있다.

또한 대량수송과 운반이 가능할 뿐 아니라 재활용 용이로 친환경성의 장점을 지녀 사용편리성 측면에서도 그 효과가 우월하다.

지난 1998년도 국내 금속캔 국민1인당 소비량은 약 95개로 조사됐으며 IMF이전에는 1인당 약 130개를 소비했던것에 비추어볼 때 금속캔 소비량은 국민소득수준과 비례해 국민소비가 증가하면 그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철강협회와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의 자료를 토대로 (사)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작성한 '금속캔 연도별 재활용 실적 및 계획'을 살펴보면 금속캔은 지난 98년이후 전체적으로 10~20%정도 가량 꾸준히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 이후 ST캔은 수량에 있어 꾸준히 증가한데 반해 AL캔은 98년 이후 수량이 감소하다가 2000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 2003년 금속캔은 ST캔의 경우

4,952,000,000관, AL캔 993,000,000의 발생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 374,000톤의 중량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금속캔 발생량이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감안 2004년 역시 올해 비해 1만톤 이상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3년 1월부터 소비자들이 폐기물의 재활용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분리배출 표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포장재 등의 제조·수입업자들은 제품과 포장지에 분리배출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됐다.

환경부가 구랍 12월 24일 "가정주부들이 종전의 재질분류 표시제와 재활용가능표시제를 쉽게 구분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이를 통합한 분리배출표시제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이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하되 포장재 생산공정 변경 기간을 감안해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표시를 끝내도록 했다"고 밝힘에 따라 금속캔의 재활용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올해 2003년 금속캔 재활용 실적이 지난 2002년 보다 다소 증가한 215,000,000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속캔 재활용 실적은 2001년 감소했던 한해

〈금속캔 년도별 재활용 실적 및 계획(전체)〉

(단위: 백만관, 천톤, %)

구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발생량	수량	ST	3,175	3,930	4,444	4,760	4,855	4,952	5,051	
		AL	1,081	856	863	95	973	993	1,012	
		계	4,256	4,786	5,307	5,714	5,828	5,945	6,064	
	중량	ST	277	325	316	343	350	357	364	
		AL	16	13	13.5	15	16	17	18	
		계	293	338	330	358	366	374	382	
재활용 실적	협회	ST	101.1	136.7	144	130.1	134	156	173	
		AL	5.7	5.5	7	10.6	11	12	13	
		계	106.8	142.2	151	140.7	145	168	186	
	기타	ST	89.7	65.5	45	39.6	50	45	45	
		AL	3.5	2.5	1.6	1.5	2	2	2	
		계	93.2	68	46.6	41.1	52	47	47.0	
	합계	ST	190.8	202.2	189	169.7	184	201	218	
		AL	9.2	8	8.6	12.1	13	14	15	
		계	200	210.2	197.6	181.8	197	215	233.0	
	재활용율 (%)	협회	ST	36.5	42.1	45.6	37.9	38.3	43.7	47.5
			AL	35.6	42.3	51.9	70.7	68.8	70.6	72.2
			계	36.5%	42.1%	45.8%	39.3%	39.6%	44.9%	48.7%
기타		ST	32.4	20.2	14.2	11.5	14.3	12.6	12.4	
		AL	21.9	19.2	11.9	10.0	12.5	11.6	11.1	
		계	31.8%	20.1%	14.1%	11.5%	14.2%	12.6%	12.3%	
합계		ST	68.9	62.2	59.8	49.5	52.6	56.3	59.9	
		AL	57.5	61.5	63.8	80.7	81.8	82.4	83.3	
		계	68.3%	62.2%	60.0%	50.8%	53.8%	57.5%	61.0%	
회수 의무율 (%)		15.0%	15.0%	40.0%	40.0%	52.0%	52.0%	52.0%		
이용 목표율 (%)		40.0%	40.0%	40.0%	40.0%	52.0%	52.0%	52.0%		

- 자료: 한국철강협회,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 AL캔 20%(소재5%), AL캔 15g/개, ST캔 70g/개로 계산함.
- 2000년도 발생량(중량)은 회원사평균중량(2000년 출고기준)으로 적용함.

- 발생량(수요예측)은 우리나라 캔 제품전체임
- 97년이후는 협회 회원사 공캔평균중량(97년 자료)으로 계산함.(99년 까지)
- 2001년도 이후 매년 2%증가로 추정

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지난 98년 68.3%에 이르렀던 재활용율이 2001년까지 감소했다가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참고했을 때 2003년 금속캔 재활용율은 57.5%가량 증가하다가 2004년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된다.

생활폐기물 매립률이 47%에 달하는 우리나라가 자원 순환형 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시행하게 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와 관련해 특히 재활용대상 품목으로 지정

된 금속캔 관련 업계에서는 용기별 재활용이 용이 하도록 제품설계에서부터 반영해 금속캔의 환경친화적인 이점을 부각, 금속캔을 차별화된 포장용기로 정착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2003년 올해 지속적으로 금속캔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관업체와 수요업체간의 긴밀한 상생관계가 요구된다. 또한 원가 절감 등을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가 필요함을 언급한다. ☞